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 년 10 월 3 일

CUOMO 주지사, DMV 가 운전면허증과 기타 신분증에 군필 여부를 표시하도록 허락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차량국(DMV)이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에 군필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재향군인은 DMV 에게 이 군필 마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수의 지역 사업체는 현재 재향군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재향군인이 여러 가지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에 군필 여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에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MV 로부터 군필 마크를 받으려면 군대를 영광스럽게 제대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전역자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 매우 귀중한 희생을 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므로 이제 정부가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할 차례입니다.전역자들이 재향군인으로서 대우를 받게 해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1 년 이내에 발효됩니다.

그 동안 DMV 는 신청서를 수정하고 군필 마크 요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타 편의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또한 명예롭게 제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검토하는 절차는 면허 갱신 과정에 DMV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될 것이며 군필 마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면허 갱신을 수작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기 갱신은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Greg Ball 상원의원은 "주지사님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향군인에게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신원을 간편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전면허증에 군필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재향군인과 적극적으로 의사교환을 하여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과 연결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지사님의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리더십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Korean

Bob Sweeney 의원은 “이번의 새로운 법안으로 재향군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사업체들이 신원을 확인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법은 재향군인을 지원하고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주지사님에게 감사 드리고 기안해주신 Copiague 의 미국 해군 Mr. Bill Linder 소령에게도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